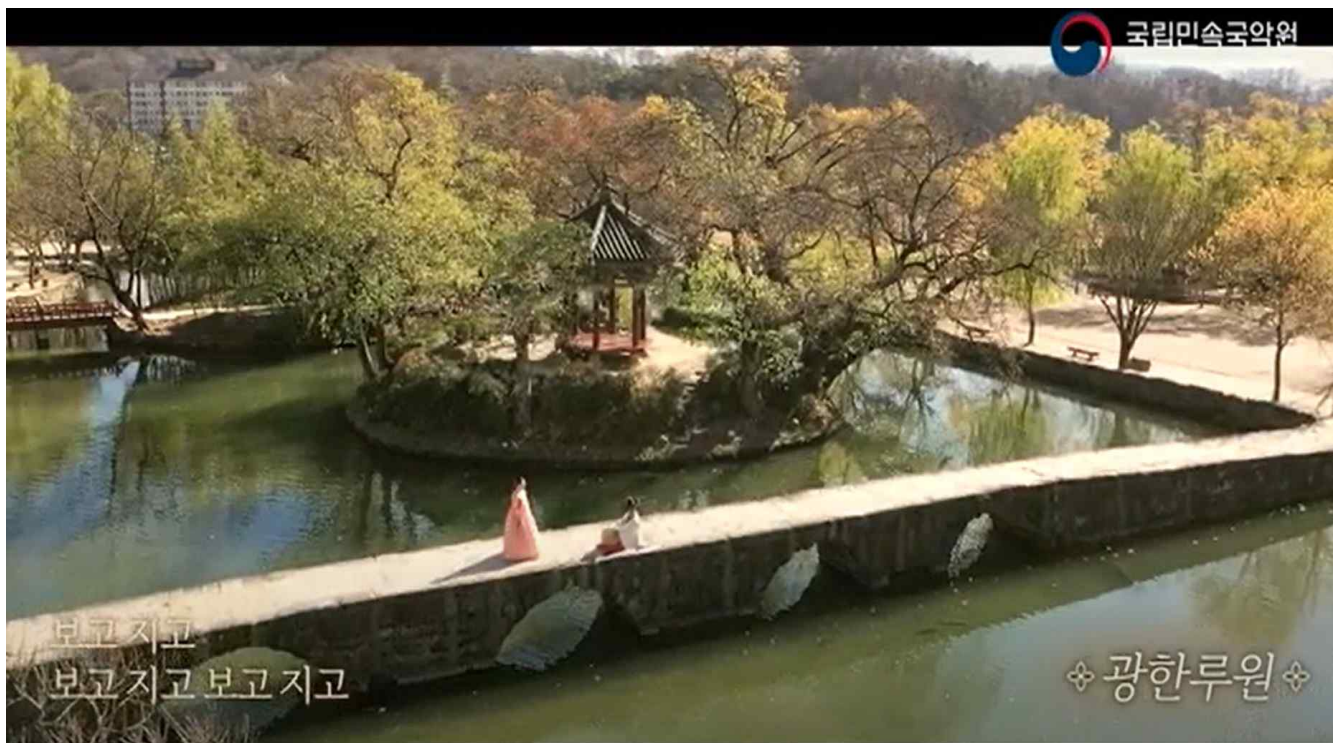




■ 영상택배 시즌2 - 오작교에서 만나는 쑥대머리



이번 주에 전해드리는 영상택배는 판소리 "춘향가 중 쑥대머리"입니다. 남원시에 위치한 광한루 오작교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쑥대머리"는 <춘향가> 가운데 옥에 갇힌 춘향이 쑥대처럼 헝클어진 형색을 하고, 떠나간 몽룡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는 대목이다. 견우와 직녀의 오작교 전설을 형상화해 만든 남원 광한루의 오작교에서 펼쳐지는 국악나들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데르센의 어린 시절

김천식(문학박사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전임 연구원)



안데르센 동상은 코펜하겐 시청사 바로 옆에 있다. 거의 모든 동상들은 높은 곳에 세우거나 근엄한 표정이어서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안데르센 동상은 앉은 자세여서 어린이들이 무릎에 앉을 수 있다. 하도 어린이들이 무릎에 앉기 때문에 양쪽 무릎이 반질반질하다.

동화작가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안데르센은 덴마크의 한 작은 마을 오덴세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이었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살아가는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었다. 안데르센이 세상에 나와 처음 누인 곳도 포근한 침대가 아니라 귀족 집에서 내다버린 나무 관을 주워 다가 만든 것이었다. 안데르센은 그의 자서전에 그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1805년 오덴세의 작고 누추한 방에 갓 결혼한 젊은 부부가 살았다. 둘은 서로를 끔찍이 사랑했다. 남자는 구두 수선공이었고 겨우 22살이었다. 그는 재능이 많을뿐더러 시적인 심성을 지니고 있었다. 아내는 남자보다 몇 살 더 많았지만, 삶이 어떤 건지 또 세상이 어떤 건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만은 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남자는 구두 만드는 작업대와 침대도 손수 만들었다. 그 침대는 얼마 전 트람패 백작이 정장을 차려 입고 누웠던 관으로 만든 것이었다. 침대위에 놓인 검은 천 조각이 그 사실을 일러 주었다.

그 관 위에 1805년 4월 2일, 첫 울음을 우는 갓 난 아이가 뉘어 졌다. 바로 나,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던 첫날, 아버지는 침대 곁에 앉아 하루 종일 홀베르크(노르웨이 태생 극작가)의 시를 낭독했고 나는 내내 울기만 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잠을 잘래, 아니면 조용히 시 낭송을 들을래?”하고 농담을 했지만 나는 계속 울었다고 한다.」

이처럼 안데르센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추수가 끝난 들로 이삭 주우러 다니기도 하는 등 그의 어린 시절은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도 부모는 어린 안데르센에게 정성을 쏟았다. 어머니는, 너는 행복한 아이이고 너를 귀족 가문의 아이 부럽지 않게 키웠다고 종종 얘기 하였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 하였다.

「아버지는 어린 아들이 하는 얘기는 무조건 다 들어 주었다. 아버지에게 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였다. 아버지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했다. 일요일이면 나를 위해 만화경을 만들었고, 또 인형을 만들어 인형극을 보여주었다. 아버지는 내게 홀베르크의 희곡과 아라비안나이트를 읽어주었다. 내가 기억 하는 한, 이럴 때 아버지는 정말이지 쾌활해 보였다.」

아버지는 절대 눈물을 보이는 법이 없었는데, 안데르센은 아버지의 눈물을 기억한다. 그것은 몇몇 사람들이 안데르센에게 새 인생을 헤쳐 나갈 기회를 줄 것이며, 이에 돈을 모아 아들의 하숙비와 수업료를 대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아들이 학교에 간다는 꿈에 부풀어 있던 아버지는 그 소원이 산산조각 나는 아픔에 눈물을 흘렸다. 안데르센은 어릴 적 일을 많이 기억하고 있으며, 이를 자서전에 매우 소상히 기록한다.

「아버지는 동년배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다. 일요일이면 나를 데리고 숲으로 갔다. 아버지는 바깥에 나가면 말이 없었다. 그저 말없이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러면 나는 혼자 여기저기 내달리기도 하고 스트로베리를 실에 꿰거나 꽃을 따 목걸이를 만들었다. 또한 나무들이 신록을 준비할 5월이 될 때쯤이면 어머니도 함께 따라가곤 했다. 이때 어머니는 성찬식에 참석할 때만 입는 가운을 입었다. 그건 어머니의 외출복이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어머니는 언제나 숲에서 너도밤나무 가지를 한 아름 꺾어 안고 와선 집 근처에다 심었다. -중략-

한 해가 끝나갈 무렵이면 세인트 존 교회의 나뭇가지에 햇살이 가늘게 쪼개지는 걸 바라보았다. 또, 그 쪼개진 햇살들의 폭이 얼마나 넓은지 보고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건지 점치곤 했다. 연푸른 나뭇가지들은 벽에 걸린 그림들과 함께 우리의 작은 방을 예쁘게 장식했다. 어머니는 방을 깔끔하게 정리했고, 홀이불과 커튼이 늘 새하얗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했다.」

<안데르센 자서전. p.25-27>

안데르센은 11살 때 늘 옆에서 책을 읽어주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와 살게 되는데, 13살 때 어머니가 재혼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변함없이 아들을 보살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안데르센의 소질이나 장래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재단사 밑으로 들어가 견습생이 되어야 한다고 강요하였다. 돈 버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데르센은 코펜하겐으로 갈 결심을 하고 어머니에게 코펜하겐으로 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때가 안데르센이 14살이었다. 어머니는 겨우 14살에 어디 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며 극구 반대하였다. 이에 안데르센은 특별한 사람들의 성공한 얘기를 책에서 읽은 대로 주워댔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모두가 어려움에 빠지지만 결국 그 고난을 헤치고 유명하게 되었는데, 나도 유명해 질 테니 꼭 보내 달라고 떼를 썼다.

결국 어머니는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몇 푼 안 되는 돈을 다 털어 여비를 마련해 주었다. 배웅 나온 어머니와 할머니는 안데르센의 목을 부여안고 우느라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렇게 슬픈 작별을 고하고 코펜하겐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 드디어 14살의 꼬마 안데르센은 1819년 9월 5일 코펜하겐에 도착하였다.



코펜하겐에 있는 니하운 항구 전경, 안데르센은 이곳 항구에서 어렵게 생활하면서 동화를 쓰며 기
반을 닦았다.



1673년에 개항된 니하운 항구는 안데르센 시절에는 가난한 지역으로 싸구려 술집들이 즐비하였지
만, 지금은 니하운 운하와 함께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어있다.

■ 천년고도 경주를 찾아서

경주 남산의 동쪽 기슭

유영봉(연구원 평의원 /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경주 남산 부석

통일전과 서출지(書出池) 사이에 자리 잡은 주차장으로 갔다. 서출지는 『삼국유사(三國遺事)』의 「사금갑(射金匣)」 조에 나오는 연못이다. 독 위에 늘어선 노송들이 구불구불 아름다운 춤사위를 그려냈다. 그저 흐뭇한 자태니, 경주의 남산을 대표하는 나무는 역시 소나무다.

철와골을 따라 올랐다. 도중에 경주에서는 평소 보기 드문 자그마한 빙폭 하나가 드는 이를 맞는다. 57년 만에 닥쳐왔다는 한파의 산물이다. 이윽고 임도에 올라 편안하게 숨길이 바뀔 즈음, 우뚝 솟은 상사바위가 나타난다. 그리고 잠시후 왼쪽으로 부석(浮石)을 등에 진 사자봉 자락이 내다보인다.

지암곡으로 길을 꺾자, 이내 팔각정 터와 부석이다. 이곳의 부석은 영주 부석사의 부석만큼 크다. 바위 뒤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보지 않는 바에는, 어느 곳에서든지 창공에 떠있는 듯 희한한 광경이다. 게다가 부석사의 것과 달리 매끈한 형태를 지녔으니, 아주 크게 확대한 강낭콩처럼 생겼다. 과연 '경주 8괴(八怪)'에 속할 만한 기이한 생김새다. 아래쪽의 탁자바위는 대충 사람의 엉덩이를 닮았다.



제3사지 삼층석탑

지암곡 제3사지 삼층석탑으로 내려가는데 코끝이 뻗었다. 머릿속이 싸했고, 손끝이 아려왔다. 그러나 기분만은 신선인 양 날아갈듯 했으니, 남산은 온통 내 차지였다. 오가는 이들이 없었다. 그야말로 독채전세였다. 남산은 오로지 나그네 하나 만을 위해 열어놓은 공간이었다. 맞다! 추위 때문에 잃는 게 있다면, 이런 호젓함이라도 얻어야 하지 않는가?

제3사지 삼층석탑 자리는 행복한 공간이었다. 새파랗게 날이 선 강추위를 비집고, 햇볕이 따듯하게 내리쬐는 곳이었다. 바람 한 점 없는 양지쪽에 부처님의 가피 넘치는 자비의 땅이었다. 곱은 손이 펼쳐졌고, 얼굴이 달아올랐다. 풍수지리적인 관점으로 보아도 참 좋은 자리였다.



제4사지 삼층석탑

그 다음 찾아간 곳은 제4사지 삼층석탑이었다. 석탑 말고도 이리저리 나뒹굴던 석재까지 수습한 곳인데, 그늘이었다. 추위가 선뜻 몰려왔다. 하산의 끝자락은 역시 서늘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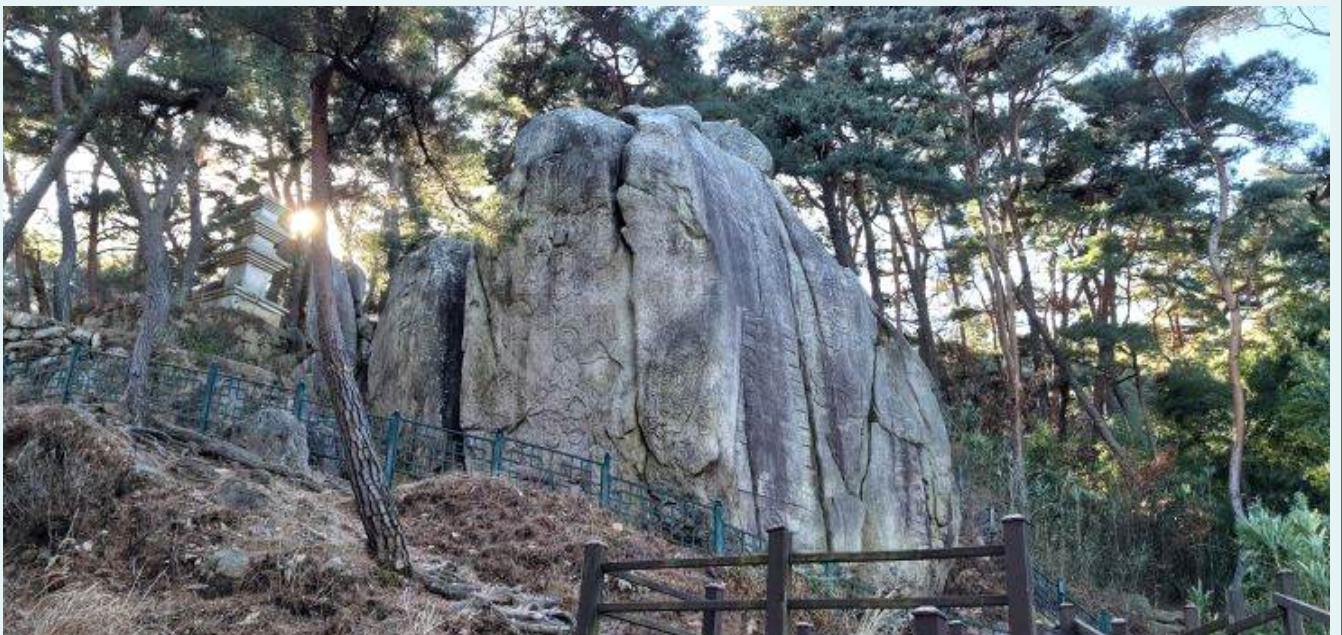
차안에서 몸을 녹인 다음 숙소로 돌아가자니, 시간이 많이 남았다. 무언가 강력한 구경 하나가 아쉬웠다. 그리하여 찾아간 곳은 옥룡암 경내를 장식한 탑골마애석불군이었다.

이곳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우뚝 솟은 바윗돌을 빙둘러가며 온갖 형상이 새겨졌는데, 지금은 볼 수 없는 신라의 목탑에다가 닫집 아래 정좌한 부처님, 보리수 아래 열반에 드신 부처님, 협시불로 새겨진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에다가 아미타불과 미륵불, 정체를 알 수 없는 동물 2종 등등 구경거리가 진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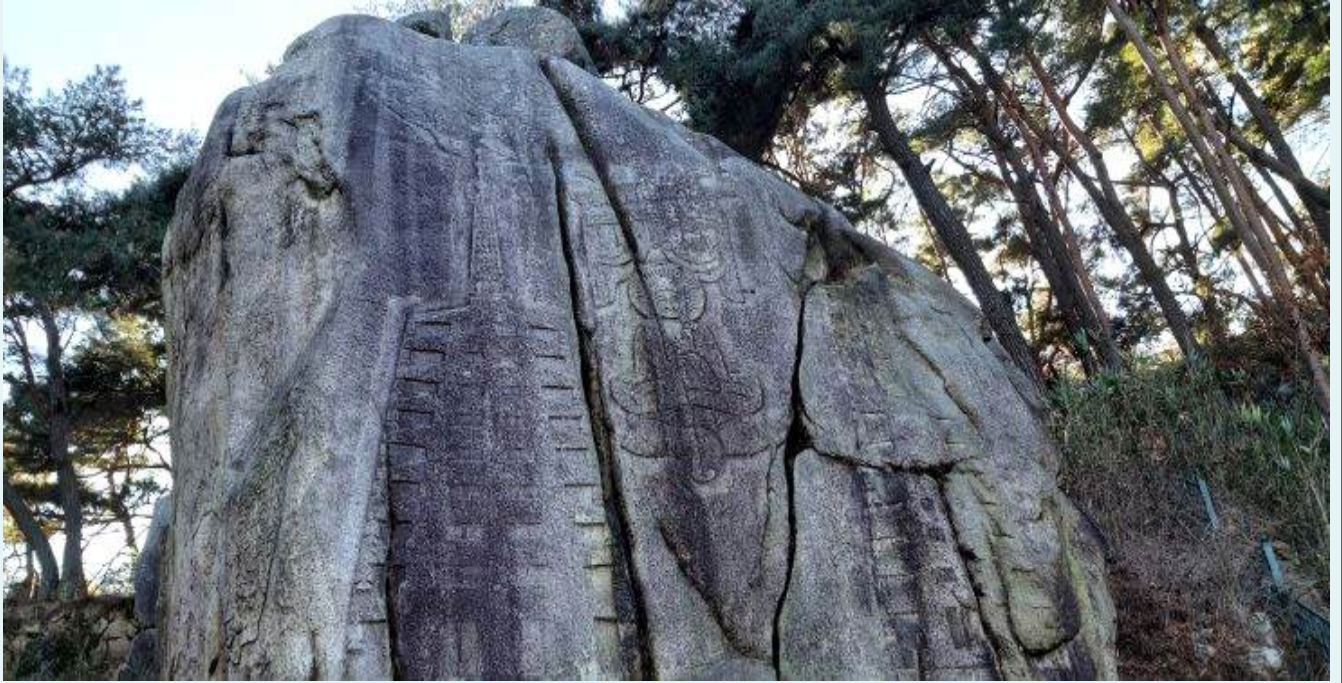
이들은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기에 차고도 넘쳤다. 어느 순간 가슴속에 뜨거운 희열이 솟구쳤으니, 호된 추위는 잠시 추위도 아니었다.



경주 남산의 상사바위



탐골마애석불군



탐골마애석불군 근경

경주 여행의 백미는 누가 뭐래도 역시 남산이다. 불국토(佛國土)의 구현을 꿈꾸던 신라인들은 이곳에 수많은 절을 짓고, 부처님을 새기고, 탑을 세웠다. 그 자취는 천년을 훌쩍 뛰어넘은 오늘날에도 찬란하게 빛을 뿜는다.

다음 주는 <경주 답사기> 네 번째 이야기 “경주국립박물관”으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